

시론

디지털 상공인 시대 포용적·공정한 디지털 전환도시 광주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원 상생발전자리재단 대표이사

'못살겠다 갈아타자' 환승배달 1천인 디지털 서명... 그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분노가 크다.

정책은 대상자에게 실질적 혜택이나 안정적 인프라를 제시하면서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된다고 해도 격변하는 디지털 기술 앞에선 기존 모델이 레거시 시스템으로 전락하기에,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꾸준하면서도 견고한 디지털 역량을 쌓아야 한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소상공인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정

감사장에서 일부 의원들은 "왜 정부가 마케팅과 유통 판로에 돈을 써야 하나"는 질문을 하고 있다. 낙수경제 시대의 명령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여전히 정부가 산업을 선도하면서 공급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 있는 Diginomics(Digital + Economics)가 되어야 한다

이런 '디지털 격차'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임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분절적·편향적 지원과 보편적 역량에 기초한 뿌려주기식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전주기적 지원과 디지털 전환 단계 맞춤형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던 것에 벗어나 민간과의 상생협력에 기초하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되며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한 정책의 외연성 확장으로 업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이 소상공인들에게 비용으로 인식되게 해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오더라는 이름으로 태블릿과 키오스크를 보급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은 안다. 스마트 오더 방식이 장치형과 비장치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비장치형이 여러모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마음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57가지의 높은 부주도나 수도권 중심, 특정 업종에 편중됐

社說

광주시 행정 난맥상 시의회 질책 반드시 새겨야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부실 행정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전남대가 글로벌대학30에서 2년 연속 탈락한 원인이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강수훈 의원은 종합건설본부에 대해 해체 수준의 대개척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총 50건의 사업 중 예산 확보나 행정 절차 이행 등이 이유로 '일시정지' 또는 '설계 중단' 건수가 24건으로 41%에 달한다는 것이다.

능이라는 거친 비난도 나왔다. 기획 따로 실행 따로로 한계 상황에 처한 허수아비 종합건설본부의 해체가 언급된 것도 광주시로서는 부담이다.

사고로 무사안일, 관례적 행정에 머물러 있다면 광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10월과 11월에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와 제329회 정례회에서는 시장질문,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돼 있다.

전남 동부권 소부장 특화단지는 혁신성장 생태계다

전남도가 동부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전남 산업의 주축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여수 석유화학산단은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로, 광양만 권은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최근 동부청사 개청 1주년 기념식을 통해 동부권의 역량과 강점을 살려 현대평양권 물류·관광·신산업 거점으로 중점 육성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의지를 다졌다.

여수 유화산단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 및 중동의 공급 과잉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놓였다. 또한 각국의 환경규제와 탄소배출 제한 정책으로 기존 화학산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플라스틱·연료 등의 화이 트바이오, 생분해 플라스틱과 페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을 일컫는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 석유화학산단 소부장 특화단지, 광양만 권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은 서둘러야 한다. 국가 발전을 위한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인 유화·이차전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전남도는 줄기차게 건의해야 한다.

문화난장



김혜숙

작가·前 무등갤러리 관장

어떤 작품을 그림까, 어떤 작품을 내놓아야 시민들과 교감할 수 있을까. 몇 번이나 망설이고 고민한 끝에 붓질을 한다. 미술 마니아만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관심을 이제 막 갖는 초보자들에게도 스며들면 좋겠다.

이런 저런 생각에 다른 때보다도 작업의 과정이 더 재밌다. 가을 열릴 '제2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10월2-6일)의 일환인 '무등아트페스티벌'에 내보낼 작품을 제작하면서 스스로 감동에 젖는다.

총장축제와 '무등아트페스티벌'

정겨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은 모양이다. '총장·광·광(光)'이란. '다시 타오르는 열정, 영원히 빛나는 우리'라는 주제에 맞춰 총장이 빛을 발할 거 같다.

무등아트페스티벌은 40여개가 넘는 총장 축제의 하고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전시 행사다. 광주는 오래 전부터 예향으로 불리워 왔다. 그냥 말뿐이 아니다. 실제로 남도의 맥을 잇는 뿌리깊은 예향이다.

필자가 무등갤러리 관장으로 있을 때가 떠오른다. 작은 소품에 자신의 색깔을 담아내는 작가들의 수고로움으로 아트페스티벌은

늘 빛나곤 했다. 거기가다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선의 구매에 컬렉터는 물론이고 미술품 구매를 해보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컬렉션의 기회를 열어줬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천명 가운데 28%(3만5천명)는 남성으로 집계됐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8만7천명) 중 남성의 비율이 5.6%(4천800여명)였던 2015년보다 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독자투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평소 고마웠던 지인이나 친지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때 주로 택배를 이용하는데 이를 약용한 스미싱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명절을 이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 주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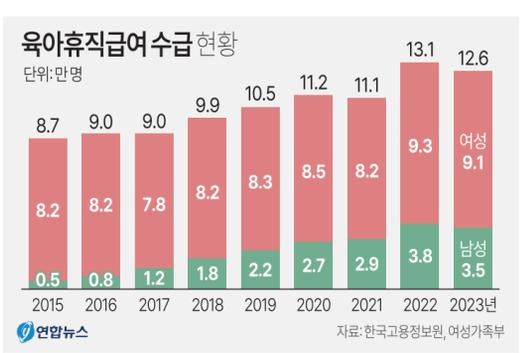
휴대전화 사용자라면 '○○택배' 택배 배송 불가 주소 확인 http://scx.dk.gld, '지연된 택배 물품 조회' 등과 함께 송장 번호 확인/인터넷 주소(URL)가 적힌 택배 문자를 한 번 정도는 받아봤을 것이다.

앱을 설치해 전화하거나 바이러스 침투, 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는 차단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접속하지 않는 게 상책으로 개인정보 요구는 사기 확률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고 고마운 사람들과 덕담을 나누면서 즐겨워야 할 추석 명절에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과 지인에게 예방법을 알려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육아휴직 쓴 아빠 늘어...휴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 남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남성의 비율이 8년 전보다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은 30대, 여성은 60대의 비중이 가장 컸다.

여성가족부는 제2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남녀의 모습을 분석한 '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5일 발표했다. 여기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천명 가운데 28%(3만5천명)는 남성으로 집계됐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8만7천명) 중 남성의 비율이 5.6%(4천800여명)였던 2015년보다 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동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